

[ 사회 ]

### 서울대 가려면 광주 남구로 가라?

광주·전남서 진학 가능성 가장 높아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에서 서울대 진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시 남구인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24일 서울대의 진학 가능성을 지역별 인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광주시 남구가 가장 높았다.

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의 경우 15~19세 인구가 1만7천561명이고 남구에 주소를 둔 서울대 재학생이 106명으로 집계돼, 서울대 진학 가능성이 165.67명당 1명꼴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의 1.15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 서초구가 30.94명당 1명꼴(6.17배)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가 30.29명당 1명꼴(5.78배)로 2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광주시 남구 외에 광주시 서구 167.18명당 1명꼴(1.14배), 장흥군 178.2

명당 1명꼴(1.07배), 광주시 동구 185.76명당 1명꼴(1.03배)로 3개 지역이 평균(190명당 1명꼴)을 넘어섰다.

고흥군은 서울대 재학생이 아예 없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꼴찌를 차지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서울대 진학 가능성은 서울이 평균의 2.4배로 가장 높았고, 대전(1.15배), 대구(1.01배), 광주(91% 수준)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평균의 48% 수준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민 의원은 "서울대에 가려면 소득 수준과 사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서초 지역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또다시 사실로 규명됐다"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소득 격차 이상으로 진학 가능성 격차를 벌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불안한’ 영광원전

### 수입 부품 결함 가동중단 등 위험 상존 소방점검 2년간 全無 불구 허위보고도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전기공급장치 결함으로 인해 가동이 정지되거나 소방시설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등 불안정 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부속 결함=24일 열린우리당 변재일(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과기정위 기입인 GE사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한 'EX 2000'(발전기 내부 전자석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지난 1998년 이후 6차례나 고장을 일으켜 발전기가 비상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광원전의 경우 지난 2004년 6월 6일 6호기 내에 설치된 이 부품이 결함을 일으켜 2일간 가동이 중지됐다. 울진 원전 2·3·6호기와 월성원전 2·3호기도 각각 이상을 보였다.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 의원은 "EX2000의 고장 원인으로 부품 내 제어계통과 전력공급계통이 분리돼 있지 않아, 제어계통이 전력공급계통에서 발생하는 고열과 진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현재 이 부품은 영광원전 5·6호기를 비롯해 국내 원전 발전기 9곳에 설치돼 있다"면서 "한수원

Y사의 소방시설관리사는 2004~2005년 발전소에 8차례 출입했지만 모두 소방시설점검이 아닌 다른 업무차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Y사는 또 이 기간 동안 나주·영광 소방서에 '스프링클러·물 분무 소화설비·옥내의 소화전 설비 등을 점검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각각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영광원전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알게 됐다"면서 "아직까지 Y사 측에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주형·조익성 기자 jhlim@



낙엽 밟으며 가을속으로

오랜 가을 끝 단비가 촉촉이 내리면서 여름 날씨 같던 늦더위는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찾아왔다. 아침 기온이 9.1도까지 내려간 24일, 광주시민들이 낙엽이 수북이 쌓인 남구 방림동 거리에서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있다.

/위정라기자 jrwi@kwangju.co.kr

### 쌀쌀한 아침 10월 25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밤늦게 구름이 많아지겠다.

구분	기온
광주	10~22℃
전남	10~21℃
전북	15~20℃
충청	10~21℃
경상	7~23℃
강원	7~22℃
제주	7~22℃
서울	9~21℃
대전	7~23℃
대구	9~22℃
부산	8~22℃
인천	6~22℃
울산	6~22℃
경주	8~22℃
안동	8~22℃
충주	8~22℃
청주	8~22℃
포항	8~22℃

서울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1.5m  
 전남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전남북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 03:21 썰물 < 08:37  
 16:06 썰물 < 21:15  
 여수 밀물 < 10:36 썰물 < 03:54  
 22:31 썰물 < 16:38

▲해돋이 06:47 ▲해질 17:46 ▲달돋이 09:38 ▲달질 19: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날씨						
최저/최고	11/20	9/22	10/20	9/19	7/20	8/18

### 전남대 학생 선발비용 전국 두번째

美 대학 평균 4분의 1 그쳐 상향조정 필요

전남대의 학생 선발비용이 전국 국립대 중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미국 대학 평균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학생 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등 전국 주요 국립대가 24일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는 최종 등록학생 1인당 41만원, 지원자 1인당 8만4천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는 최종 등록학생 1인당 60만원, 지원자 1인당 13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하버드·에일 등 주요 대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최종 등록학생 1인당 1천753달러(168만원), 지원자 1인당 442달러(42만원)를 학생 선발에 썼다. 이는 최종 등록학생 1인당 기준으로 서울대의 3배, 전남대의 4배, 부산대(25만원)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학생선발 비용이 차이 나는 이유는 미국 대학이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을 학교당 평균 100

#### 국내 국립대학과 미국의 학생선발 관련 비용 비교

구분	선발비용 (천원)	지원자당
서울대	596	130
전남대	412	84
경북대	299	51
충북대	291	45
충남대	288	43
전북대	285	64
경상대	251	45
부산대	247	53
미국대학 평균	US 1,753	US 714 / US 442

명가량 고용해 고교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평가하게 하고 이를 입학 전형에 반영하는 반면, 국내 대학은 획일화된 점수 위주의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정부의 지나친 대입 규제로 수능, 내신, 논술 등 대입 3종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결책은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해 고교별 교육프로그램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사상문학회’ 광주대서

27일 국제학술대회

‘한국사상문학회’(회장 김익수)가 오는 27일 오전 11시 광주대 중앙도서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형철 광주향교 전교과 김혁중 광주대 총장의 축사에 이어 김익수 회장의 기조연설,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아시아적 가치의 조명' '동아 문명과 유학' '일본문화와 유교' '지구 윤리와 유교' 등에 대한 한·중·일 3개국 학자의 열띤 토론을 통해 한국적 유교문화에 대한 재조명을 모색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초속 63.7m 기상관측이래 최대풍속

설악산 중정봉 올 첫 얼음

중정봉에 내렸던 눈은 24일 새벽 3시40분까지 최대 17cm의 적설량을 보였다.

이곳에는 23일 오후 2시21분께 북서서 방향으로 순간 최대풍속 초속 63.7m의 강한 바람이 불기도 했다. 이 같은 바람 세기는 지난 1904년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중정의 경우 태풍 '매미'가 강타했던 지난 2003년 9월12일 제주도에도 불었던 초속 60m의 강풍이 최고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후보 사퇴 등 악성루머로 피해”

윤영월 교육감후보 주장

이 같이 밝히고 "악성루머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함은 물론 본인의 득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이번 국정감사 고발 건은 증인이 아닌 자진출두석에서 이뤄진 '넋두리 욕설'로 공무원으로서 특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교육감 선거 당선무효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결선에 정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TNGT, laformo, DAKS golf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서방점  
☎1000-511-0249

##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을...”

KAIST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자동환기시스템 "코코" 출시

실내공기정도를 자동측정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드립니다.

자동환기시스템

KAIST 한국과학기술원

필드시스템 ☎062)603-2752